

		<h1>보 도 자 료</h1>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5쪽(붙임 4쪽 포함)	
배포일시	2021.3.30.(화)	담당부서	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국립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	
담당과장	정소운 (02-901-7150) 김영산 (02-901-7110)	담 당 자	박소영 (02-901-7011) 박무정 (02-901-7121)	

통일교육원이 「국립통일교육원」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.
- 통일교육원 기관 명칭 변경 -

- 오늘(3.30) 통일교육원이 「국립통일교육원」(원장: 백준기)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,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.
 - 국립통일교육원 청사(강북구 수유동 소재)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하여 박겸수 강북구청장, 문영금 문익환통일의집 관장 등 관내 인사와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(위원장: 유세경 이화여대 교수) 등이 참석하여 「국립통일교육원」 출범을 함께했습니다.
 - * 외부 참석대상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, 교육원 소재지 내 유관 인사로 제한
-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“내년 개원 5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국립통일교육원 출범은 국민 속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는 계기로서,
 - 이를 통해 평화·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확산하는 데까지 통일교육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“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국립통일교육원과 함께 열어가자”고 말씀하셨습니다.
 - 백준기 국립통일교육원장은 “기관명에 ‘국립’을 명기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것”이라고 기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밝혔습니다.
 -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“순국열사·애국지사·4·19 민주주의 수호의 영령이 함께하는 이 지역에 국립통일교육원이 새출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,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더욱더 통일교육에 적극 동참할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- 문영금 문익환통일의집 관장과 유세경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장도 “국립통일교육원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,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에 더욱 힘써줄 것”을 요청하였습니다.
- 현판식 후 「국립통일교육원」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자문회의 토론회와 ‘국립 통일교육원 견학 프로그램’이 진행되었습니다.

붙임 : 1.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관련 참고자료.
2. 현판식 행사 현장 사진 ☐

1. 연 혁

- '72.5월 통일원 소속기관 「통일연수소」로 창설한 이래 '96.12월 「통일교육원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 통일교육 전문기관 역할 수행
- 통일교육원은 원내 조직 개편과 병행하여 2차례 기관명 변경
 - '72년 통일연수소(개소) → '86년 통일연수원 → '96년 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후 현재까지 '통일교육원' 기관명 사용
 - * '90년대 국제 환경 변화, 제6차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중점 교육분야의 하나로 제시 등을 계기로 기관명을 '통일교육원'으로 변경
- 통일교육원 기관명 변경('국립통일교육원')
 - 수요자(국민) 중심의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'공신력 있는 통일교육 전문기관'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명에 '국립' 추가 (통일교육원 → 국립통일교육원)

2. 필요성

- 통일교육 수요자 접근성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'공신력 있는 통일교육 전문기관'임을 명확히 함.
 - 통일교육원은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·통일 교육 실시해오고 있는바,
 - 국민의 입장에서 '정부 통일교육기관'으로 인지하고, 공신력을 제고하여 올바른 정보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전달할 필요
- 특히, 유일한 '정부 통일교육기관'이자 '책임운영기관'으로서의 위상 정립

- 최근 비대면(untact) 교육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통일교육 접근빈도가 급증
- 온라인상에서 더욱 더 국민의 입장에서 식별 가능한 기관 명칭으로 변경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홍보 기능 강화 필요

* 포털 '통일교육원' 검색 시 발견되는 타 교육기관 등과 혼선 방지 필요

□ 민간에서도 통일교육원에 기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

- 「통일교육 민관협의회*」, 「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회」, 「통일교육위원회협의회」 등 통일교육 거버넌스 회의에서 기관 명칭 변경 건의
 - “명칭 변경을 계기로 타 연구기관과의 차이, 관계, 역할,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”는 의견

* (통일교육 민관협의회) 통일교육 방향·내용·제도 등에 대한 협의·자문을 위해 전문가·시민단체·교육계·국회·유관부처 등 26명으로 구성(통일부 차관-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공동위원장)

3. 기대효과

-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교육 전문기관임을 국민들이 쉽게 알게 되어 수요자 접근성 및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
- 한반도 평화·번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수행에도 기여
 - 특히, 통일교육은 학교 및 사회 제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가 관건인바, 통일교육의 조정·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공신력 제고는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연결

붙임 ②

현판식 행사 현장 사진



